

순천시, 폐기물처리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허석 순천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달라지는 순천시 폐기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허석 시장은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국한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생과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단계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 20%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생 및 배출 단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개별계량기를 100% 확대설치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50%까지 보급한다. 아울러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처리의 주민부담률을 현실적으로 상향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쓰레기 발생·배출·수집·운반 모든 단계 “시민 의견 적극 수렴 상반기 중 확정할 것”

분리축진 운동 등 다양한 시책도 전개한다. 쓰레기 수집·운반단계에서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입찰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집·운반단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기존의 문전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수거 방식을 정착하기 위해 동지역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읍면지역 일부에서 시행중인 클린하우스를 47곳에서 2025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하여 도심빌라 및 농어촌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클린업환경센터’는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순천시 재정사업으로 설치하며 환경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최첨

단 시설로 시민의 감시 하에 철저히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존속기간 동안 가구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미래세대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순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노인일자리 등 사업 시작 ‘전남 최대 규모’...211억 3600만 원 투입 8260명 참여

여수시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4억 6천200만 원 증가한 211억 3천600만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최대 규모인 8,26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전년보다 1,417명 많은 11,124명이 접수해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자들은 민간수행기관, 읍면동 등 37개 수행기관에서 활동하며,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연중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77개 사업을 추진하며,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감염병예방지킴이, 공공시설물 청결방역단, 관광안내 도우미 사업 등 총 14개 신규 사업이 신설됐다. 특히 감염병예방지킴이사업으로 지역 경로당과 독거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실내·외 소독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한파대비 참여자 안전을 위해 활동시간을 오전반(10:00~13:00), 오후반(13:00~16:00)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등 근무인원을 분산하거나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청년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내일까지 70여 명에게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

광양시가 오는 19일까지 2021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지역 내 거주 대학생에게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대학생이 공직 및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봉사심을 함양하고, 행정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광양시 청년 행정인턴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매해 35명을 모집했으나 이번 동계 행정인턴은 더 많은 청년이 체험하도록 50~70명 이내로 확대 모집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행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정인턴부터 지역 내 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하거나, 안전 체험 등을 실시한다. 자격요건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으로 휴학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신청은 이력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

료를 구비해 메일(haos3104@korea.kr)로 보내거나 광양청년꿈터(오류5길 8)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2일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2주로 1차 선정자는 1월 28일~2월 10일, 2차 선정자는 2월 15일~2월 26일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경험을 쌓게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061-797-1993)이나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는 각종 청년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비대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22일까지 모집...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총 10회 걸쳐

고흥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농업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평년과 달리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이버밴드에 가입하면 교재를 우편으로 받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네이버밴드 라이브와 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플랫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교육 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 육성 등에 맞추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과정은 △토양(2월 1일) △식량작물(2월 2일)



△축산(2월 3일) △마늘(2월 4일) △농업전망(2월 5일) △농촌자원(2월 8일) △농업경영(2월 9일) △고추(2월 15일) △유자(2월 16일) △야생대과수(2월 17일)로 10일간 매 13:30부터 시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매년 실시하던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미참석 농업인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읍면에 영농종합기술 교재 1,400부를 2월 중으로 배부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교육이 평년과 다르게 진행되는 만큼 자세한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교육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특화작목 사업 본격 추진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원에 온실환경 제어시스템 등

고흥군은 과수·원예농가의 코로나 19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2021년 특화작목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구축,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신소득 아열대 과수 육성 등 30개 주요사업에 사업비 5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농가 증가에 따른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4계절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원예작물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과채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지원 사업’,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및 건조 시설지원 사업’ 등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단호박 선별기 공동이용시설, 배·복숭아 재배시설,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지원 등 각 특화작목 분야별로 사업을 맞춤 세분화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동력

